

분제농약 오용사고방지 특별개선대책

그림문자 · 부착 등 농약포장지 개선 사고방지 홍보 · 교육 강화방안 마련

밀가루봉지와 완전 구분, 포장지는 은박 · 바탕색 붉은색으로
'색소 · 약취제' 첨가 및 검토, 리후렛 배부 및 각종교육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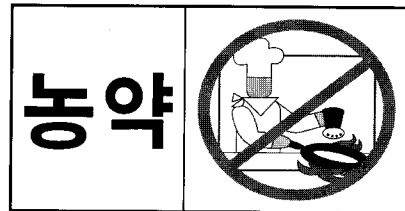
농약은 농작물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사람에게 있어 의약과 같은 '농작물의 약'이다. 의약 없는 현실을 고려할 수 없듯이 농작물 재배에 있어 농약은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자재이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농약의 고유기능과 무관한 사고가 발생해 농약에 대한 불신 우려는 물론 사고당사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최근 고령의 부녀자들이 지오릭스분제 농약을 밀가루로 오인, 부침개를 부쳐먹고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농진청과 농약업계는 분제농약 오용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협의회('03. 1. 14)를 갖고 △농가보유 지오릭스분제 잔여농약 수거 △밀가루봉지와 확연히 구별되는 포장지 개선 △홍보 및 안전사용교육 강화 방안 등 오인으로 인한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수거대상농약은 색소첨가 안된 지오릭스분제 농약으로 99년 8월 이전 생산된 미개선 제품이며 전국의 농약판매업소에서 시가 현금보상 또는 다른 저독성농약으로 교환해 주기로 했다.

또 지오릭스분제 농약 포장지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PE포대는 「은박포장지」로, 바탕색은 흰색에

분제농약 그림문자



서 「붉은색」으로 변경하고 적색고딕체로 「농약」경고문구를 크게 표기하며 「음식물 사용금지」그림문자를 포장지 양측면에 표시(기 제작분은 스티카 부착)토록 했다. 이와함께 색소 및 약취제 첨가는 기 조치사항과 별도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제조사별로 첨가방안을 마련, 제출토록 했다. 기타 분제농약도 차기 제작분부터 동일 개선대책을 적용키로 했다.

또 농촌진흥청과 농약공업협회가 특별개선대책 내용 및 주의사항 등을 담은 리후렛 1만부를 제작, 지도기관 및 시판상, 마을단위에 배부하고 잘 보이는 곳에 부착토록 하였으며 공직자 및 농협·시판상소양교육, 신규관리자자격이수교육, 소면적재배농가교육, 농업인재해영농설계교육시 사고방지 특별교육을 실시키로 하였다. **농약정보**